

신나이가이멘의 당면 사업전략

다품종 특수사의 소로트·단납기 체제가 이익의 원천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은 색상(色狀)변화사, 형상(形狀)변화사, 혼상(混狀)변화사 등 다품종 특수사를 갖추고 소로트·단납기 방적 체제로,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체제가 이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편 생지 판매부문은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부문을 흑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 3개년 계획으로 체질 개선하여 흑자화

신나이가이멘의 2002년도 연결결산은 약간 감수(減收)하였으나 영업에서는 이익이 증가하여 경상손익(經常損益)은 흑자로 되었다. 감수된 요인은 텍스타일 부문이 고전하였기 때문이며, 적자가 줄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적자이다. 그러므로 2003년 상반기부터는 텍스타일 부문에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업에서 적자를 보이던 텍스타일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면, 방적 부문의 이익이 전년 수준 정도만 되어도 회사로서는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텍스타일 부문에서 니트분야는 잘 되고 있지만 직물 분야가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흑자사업으로 바꾸기 위하여, 직물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옮기는 것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바꾼 바, 그 효과가 점차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전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좀 더 큰 시점에서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

시끼보·그룹과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 합작)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수익력(收益力)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들 구상을 포함하여 2003년을 초년도로 하는 3개년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3년 동안에 재무체질을 완전히 개선하여 손익계산이 흑자가 되도록 개선하고 수익력도 유지향상시킬 것이다.

텐셀 섬유직물의 생산은 방적부터 제직, 가공까지 해외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며, 생지로 납품하는 경우와 봉제까지 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선행투자단계(先行投資段階)로서 해외에서 생산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하였는데 점차 품질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을 추구하지는 않고 있으나 고객마다 거래량이 커지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부터 사업업적이 개선될 것이다. 니트생산은 일본 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시황의 변화에 대하여도 플렉시블(flexible)하게 대처코자 한다.

◎ 500kg의 소로트도 생산하는 체제

방적부문에서는 다품종 소로트생산으로 흑자를 낼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앞으로 더욱 경쟁이 심해질 것이며, 특히 고객에게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전략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생산체제는 이미 구축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각양각색의 실을 개발하여 상품의 베리에이션(variation)을 늘려나갈 것이다. 공장에서는 창의성이 뛰어난 기술자들이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실의 판매는 여전히 순조롭지만, 한때 잘 팔리던 “모꾸이도(柰絲 이색연사 : grandrelle yarn)”는 약간 줄고 있으며, 넵 · 얀(nep yarn), 슬러브 · 얀(slub yarn) 등의 형상 변화사는 늘어나고 있다.

특정 고객만을 위한 특수 주문사는 첫번 주문 생산만을 보면 생산능력의

10%정도로서 최소 수주 로트는 500kg에 불과한데, 이들 특수 주문사의 리프트·오더(repeat order : 재차 주문)분도 합산하면 전 생산능력의 30%정도가 된다.

특수 주문사의 수주량이 다품종 소로트 체제의 초기에는 특수 고객에게만 최소 500kg까지 허용되었는데, 이 체제가 궤도에 오르면서 2001년 가을부터는 모든 고객에게 소로트 주문을 개방하고 있다. 예전에는 실을 특수 주문하려면 적어도 2 3톤은 되어야 가능하였기 때문에 방적 공장에 직접 주문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수주 로트의 크기가 대폭 작아지자 중소기업 등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500kg단위의 소로트 생산체제를 확장하여 월 생산량의 40%인 1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극소로트의 시방(試紡)도 추가요금으로 주문받고 있다.

◎ 독자적인 방적기술로 단납기 생산

신나이가이멘은, 타사에서는 만들 수 없고 이 공장으로 주문하여야만 하는 실을 만들고 있다. 또한 원료만 확보되면 2주일만에 주문자에게 납품할 수 있는 단납기 체제가 되어 있어 고객들로부터 이들의 부가가치를 인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나이가이멘은 염색된 면으로 방적할 수 있는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어떤 천연섬유끼리도 1 99%의 혼율 폭으로 혼방사를 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실크 99%에 면 1%의 혼방사도 뽑을 수 있다. 실제로 염색된 면 1%에 흰색 면이 99%인 혼방사를 뽑고 있다. 얼룩 실에서도 굵기나 마디의 길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술도 있다. 섬유장이 균일한 합섬으로 슬럽(slub)사를 만들면 섬유장보다도 짧은 슬럽(마디)은 만들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 공장에서는 섬유장보다도 짧은 슬립을 만들 수 있다. 색상변화와 형상변화를 결부시킨 실도 자랑할 만 하다.

이와 같은 자랑거리를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여야 하며, 우선 금년 “재팬·크리에이션(Japan Creation)”에 출품하여 이들 특수사를 광고하고, 해외 전시회에도 출품할 예정이다.